

번호 13-3

제 목	국문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 비교			
	영문	A Comparison of Self-rated Health and Functional Limitation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in Japan and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운환, 新開省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東京都 老人總合研究所 地域保健部門			
	영문	Yunhwan Lee, Shoji Shinka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Gerontology			
분 야	보건관리 (O)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O)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O)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O)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2 월				

1. 연구 목적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 인구의 노령화 속도에 있어서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데 일본의 경우 24년(1970-1994)이 소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22년(2000-2022)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신체적 기능상태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각 건강지표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제반 변수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는 의료이용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노후에 있어 건강기능상태의 유지 및 증진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능상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87년도 일본 전국노인조사와 1994년도 한국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들 전국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2단계 표본추출법에 의해 각각 2200명과 2058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원의 조사표를 비교해 서로 유사한 개인적 특성, 건강상태 등에 관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주관적 건강평가 지표로는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을 사용하였고, 기능상태로는 운동능력, 일상생활에 관한 ADL, IADL에 관한 10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단순빈도분석을 이용해 양국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만성질환, 우울증상, 생활만족도, 병원입원경험 등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일본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자(22.4% 대 17.1%)와 남성(45.2% 대 54.8%)의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이 일본의 경우 전체의 34.1%인데 비해 한국노인의 경우 9.6%이었으며, 연간 소득이 120만 엔 미만인 비율이 일본노인의 경우 38.2%인데 비해 한국노인은 91.1%이었다.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일본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합이환율(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일본노인은 31.3%, 한국노인은 58.4%이었다. 우울증상과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노인이 상대적으로 우울증상이 적었으며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주관적 건강평가를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일본노인은 82.6%, 한국노인은 56.3%이었다. 기능상태에 있어서도 각 ADL, IADL, 운동능력 각 항목별 장애율이 한국노인이 일본노인에 비해 높았다. 특히 한국노인에서는 하체운동장애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본노인의 경우 상체운동장애의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유사한 관련성을 보였다. 고령자와 여성인 경우, 복합질환이 많고, 우울증상이 심하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각 건강상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4. 고찰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평가와 기능상태에 있어 일본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건강수준이 높았으며 양국 노인간에 현저한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노인이 일본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정서적 건강수준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년층을 위한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문항의 문화적 비교성에 대한 검증, 통제에서 제외된 변수 등 연구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기능상태 관련요인들이 양국 노인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중 변경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양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노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일 노인간 건강상태의 현저한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노인건강상태의 추이와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